

# '기본교육'으로 여는 2026 광주교육…실력으로 행복한 성장

광주시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설명회  
공교육 패러다임 전환 성공모형 구축

광주시교육청이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를 2026년 광주교육 방향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장 및 주요 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광주교육이 추진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정책 방향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5년 주요 성과 소개, 이정선 교육감의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비전 발표, 2026년 광주교육 4대 중점영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새롭게 '기본교육'을 교육 비전으로 삼아 '교육안전망·맞춤형성장·행복공동체' 3대 축을 중심으로, 광주교육 4대 중점영역과 16대 중점사업에 반영돼 추진된다.

기본교육은 학생의 배움과 돌봄, 미래사회에 필

요한 기본역량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교육이다.

내년 4대 중점영역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이다.

'다양한 실력'을 위해 다양성을 품은 수업, 창의적 독서·인문학 교육,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체육 교육 등을 강화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이 중등까지 확대되며,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한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인권 강화, 교육공동체 마음건강 지원, 공감하는 인성·생활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시한다.

'민원면담실' 구축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기교실 캐어샘'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등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또 인성교육 프로그램 '다정다감 프로젝트'와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학생 사이버 방범단'을 도입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집중한다.

'글로벌 기반 세계로'를 위해 세계를 이끄는 글로

벌교육,,5·18 광주정신 세계화, 실천하는 K-민주 시민교육, ESG에 기반한 교육협치에 나선다.

'글리세포털 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현장의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지원 업무를 경감하고,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이중언어 협력교사 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기반 미래로'를 위해 노벨상 프로젝트 수학·과학 교육, AI 강국을 주도하는 미래교육, 지구를 지키는 생태전환교육, 데이터 기반 학교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전국 최초 AI전담 교육기관인 '광주시교육청 AI 교육원'을 오는 1월 개원하고, 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과 'JAM있는 과학 중점 주간' 확대를 통해 미래사회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본교육으로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교육의 성공 모형을 만들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힘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정선 교육감이 최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장과 주요 기관장 등 1000여 명에게 2026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전남대 학생들, 학교 주변 상권 함께 살린다

경영학부 '잇다잉' 실전형 프로젝트  
용봉지구 활성화 교내 홍보부스 운영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강의실을 벗어나 지역 상권의 실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론 중심 수업이 현장 실천으로 확장되며, 대학 교육이 지역 변화를 만들어내는 RISE형 교육 모델이 현실에서 구현됐다는 평가다.

18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은 RISE사업의 일환으로 용봉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전형 프로젝트 '잇다잉'을 기획·운영하고, 교내에서 이를 소개하는 오프라인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사진>

이번 프로젝트는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한병섭 교수의 지도 아래 진행된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 소비 패턴을 반영한 '코스형 패키지'를 직접 설계하고 실증 운영까지 이어진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단순한 기획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전 과정을 주도했다.

'잇다잉' 팀은 먼저 전남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봉지구 상권에 대한 인식, 방문 빈도, 소비 성향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용봉지구는 전남대학교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보 접근성이 멀게 느껴진다", "가게 정보가 부족하다", "유흥 중심 상권 이미지가 강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은 상권 정보 부족과 심리적 거리감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코스형 패키지' 전략을 도출했다. 이후 직접 점포를 방문해 인터뷰와 체크리스트 평가를 진행하며, 가격대·분위기·접근성·재방문 의사 등을 기준으로 참여 점포를



선별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카페와 식사를 연계한 낮·밤 패키지 코스를 구성해, 상권 내 체류 시간과 소비 확장을 유도하는 소비 동선을 설계했다. 패키지 설계 과정에는 한병섭 교수와 함께 참여해 마케팅, 소비자 행동, 산업분석 등 전공 이론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했다.

완성된 '잇다잉' 패키지는 교내 오프라인 홍보 부스를 통해 전남대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소개됐다. 부스 현장에서는 스티커·참여형 콘텐츠·사전 신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패키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대학교 경영학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전공 기반 실습형 교육과 지역 상생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RISE 사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 프로젝트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도교육청, 내년 3월부터 중1~2 학생에 매월 5만원 교육수당

### '학생교육수당 개정 조례안' 통과

전남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중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매월 5만원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수당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도교육청은 기초자치 단체와의 공동 추진 근거 확보와 교육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확대 추진, 중·고등학생의 교육·진로·체험 활동 지원 강화 등 사업 전반의 안정

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정책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당 중복을 해소하고, 교육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교육청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는 내년 2월까지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초등학생에 대한 지급 구조를 조정한다.

대신 내년 3월부터 중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매월 5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초등 저학년 지급 재

월을 조정해 중학생 교육복지로 전환한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앞으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기초자치단체 대응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고등학생으로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만 전남도교육청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전남의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의 교육적 활용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동강대, 지역 맞춤형 돌봄 스마트 전문가 45명 배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가를 육성했다.

동강대 RISE 사업단은 지난 19일 통합 돌봄 매니저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갖고 스마트 돌봄 전문가 45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동강대는 의료와 복지 분야의 융합형 전문 인력을 양성해 초고령 사회의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0여 명이 지원해 서류 심사를 거쳐 45명이 교육생으로 선발됐고 지난 14주간 총 31시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특히 노인 안전관리 3단계 교육 등 22시간의 심화 이론 과정을 진행해 고령

층 대상 돌봄에 필요한 핵심 지식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인권·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9시간의 실습도 병행하며 실무 능력을 키웠다.

수료생 대표 박경만씨는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해 통합 돌봄 매니저로서 필요한 역량을 쌓았다. 초고령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스마트 돌봄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을 기획·운영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김숙일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돌봄 수요에 대응할 융합형 전문가를 육성했다. 앞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